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3. 10. 3.(화)

추석 연휴기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현장 경찰관 격려 방문

- 방기선 국무조정실장,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
- 20~30대 젊은층이 많이 찾는 신림역 일대 도보순찰, 치안여건 등 점검
- □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0월 3일(화) 오후, 추석 연휴 기간 비상근무 중인 당곡지구대(서울시 관악 소재)를 방문해 현장 경찰관들의 노고를 격려하고,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.
 - ※ 참석 : 박민영 관악경찰서장, 박인구 관악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, 김정희 당곡지구대장 등
 - 방 실장은 박민영 관악경찰서장으로부터 관악경찰서 관내 현황 및
 치안정책 등을 보고 받은 후, 치안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
 경찰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
 - "최근 경찰청에서 국민안전을 확고히 지키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 중인데, 일선 현장에서도 '오로지 국민의 안전만을 위한다'는 경찰 조직개편의 큰 취지를 이해하고 동요됨이 없이 범죄예방과 대응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"하였다.
 - 또한, 관악경찰서 경찰관들에게 무전을 통해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며,
 "추석 연휴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더욱 애써줄 것을 당부"하였다.
- □ 이어서, 경찰관들과 함께 20~30대 젊은층이 많이 찾는 신림동 별빛거리 등 신림역 일대 도보순찰을 통해 관내 치안여건 등을 점검하였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	책임자	과 장	송헌규 (044-200-2082)
	일반행정정책관실	담당자	경 정	김세준 (044-200-2085)





참고

관악경찰서 및 당곡지구대 현황

□ 관악경찰서 관할

○ (조직) 14개 과, 6개 지구대, 3개 파출소, 9개 치안센터

면적	인 구	세 대	비고
29.56km	487,192명	286,647세대 (관악구 21개동)	경찰 1인당 담당인구 529명

<인구통계 출처: 관악구청, 2022.12.31. 기준>

□ 지역적 특수성

- 대학·신림동 주변 1인 가구 및 20~30대 인구 다수 분포
 - 관악구 1인 가구수(174,511, 60%), 20~30대 인구수(197,561, 40%) 서울시 1위
- 서울 강서권, 강남권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
 - 남부순환로 : 동·서를 연결하는 주요도로로 상습정체
 - 다세대주택·상가 밀집으로 교통 및 인구혼잡도 높음

□ 당곡지구대 현황

관 할	현 황		
면 적	인 구		
1.71km²	63,445명		
(신림동, 보라매동, 은천동)	(경찰 1인당 담당인구 972명)		

- ▲ 신림역·봉천역 주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합되어 숙박업소, 상가, 유흥가, 원룸 등이 밀집 주거침입, 폭력 등 강력사건 범죄 다발
- ▲ 원룸촌과 영세상가 등 **대표적 서민 주거지역으로 유동인구 집중** (1日 12만여명)